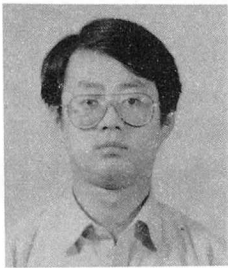


새로운 기술 받아들일려는 자세 아쉬워



김영현
(선진축산(주) 양돈PM)

빠스 고무줄 같이 길고 무더운 장마!
습기 가득찬 돈사 안에서의 돈분제거 작업을
마치고 나면 전신에 포도알처럼 땀방울이 맺혀
유두(?)를 타고 거쳐서 배꼽으로 쪼르륵...(도
시의 어르신네들은 거금 ₩5,000냥을 내고 사우러
(사우나) 가는데 돈안들이고 사우나 하는 기똥찬
(?) 직업...)

이와같이 착하게만 살아가고, 즐거운 일만 발
생하는 이 나라에 나쁜 놈(?)들의 스파이와 행
동대원(오제스키, 돼지괴질 등)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더니, 급기야 나쁜놈(?)들이 연대투쟁을
전개해 드디어 아군의 진지에 무차별 공격을 개
시하기 시작했고, “이완용”의 사촌되는 놈(?)들
이 돼지고기 수입을 확대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해서 경기도의 한 모퉁이
에 자리잡고 있는 이천 땅에서 8도의 양돈 도사
님들과 상의해 적군을 완전 섬멸할 대책을 강구
하여 아래와 같이 그 비책을 밝힌다.

1. 自知면 晚知고 補知면 早知라.

아침, 저녁 심지어 오밤중(?) 잠자리에까지
막걸리와 기술자료를 들고 사양가 여러분을 찾아
오는 사료 선생님과 약품 선생님들...

이들 왈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이렇고, 돼지
출하일령은 얼마고, 백신은 언제 하고...” 이와
같은 선생님들의 설명에 사양가 왈 “자씩(?)들
웃기고 있네, 내가 돼지를 키워도 너보다 오래 키
웠고, 아는 것도 너만큼 안다. 다 니네들 제품 팔
아 먹으려고 하는 수작(?) 아니냐” 물론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요사이의 정보화 시대이다. 어제의 처
녀가 오늘의 처녀가 아니듯이(결혼하면), 어제의
사양관리 기법이 최고의 사양관리 방법이 될 수



“
 요새와 같이 무덥고 습한 여름철,
 우리의 돈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부담이 되는
 환기, 냉방시설을 갖추기가
 힘들다면 고무호수에 구멍을
 내어 돈사 지붕위에 고정시켜
 물을 뿌려주면 돈사안의 온도를
 4~5℃ 정도 낮출 수가 있다.
 ”

만은 없다.

양돈기술은 그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와같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신양돈기술을 과감히 받아들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 프로 양돈에서 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데!

흔히 양돈을 오랫동안 열심히 잘해오신 도사님들에 의하면, 돼지 키워서 돈 버는 비결은 “땀발자국(땀×발자국)”의 숫자라고 이야기 한다.(무슨 농담을! 요새와 같이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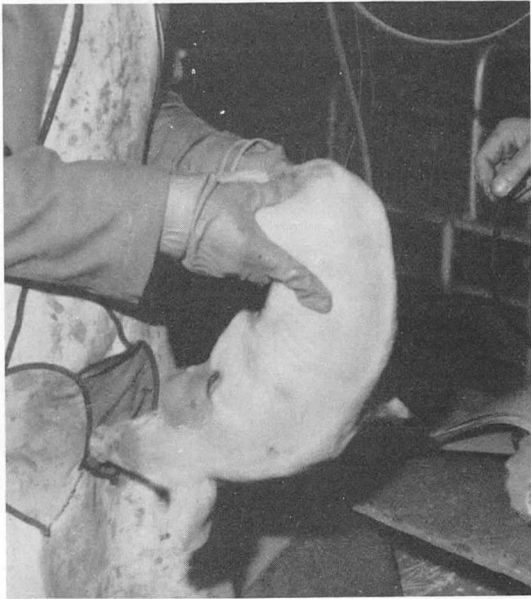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말, 진실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의 주변 사양가를 통해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다.

돼지를 새로 시작한 1, 2년째에는 질병도 없고, 비육성적도 좋았던 것이 3, 4년을 지나면서부터는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세균 상재 영향도 있지만), 비육성적 또한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고무신을 똑바로 신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요새와 같이 무덥고 습한 여름철, 우리의 돈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부담이 되는 환기, 냉방시설을 갖추기가 힘들다면 고무호수에 구멍을 내어 돈사 지붕위에 고정시켜 물을 뿌려주면 돈사안의 온도를 4~5℃ 정도 낮출 수가 있다.

또한 겨울철에 시멘트 콘크리트 돈사위에 깔짚을 조금만 넣어 주어도 돈사안에서 돼지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4~5℃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조그만한 정성 하나하나가 뭉쳐서 더욱 더



훌륭한 생산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다. - 처녀가 임신을 혼자서만은?)

3. 기록은 돈이다.

갑돌이와 갑순이의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연령)라는 숫자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속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색깔(?)있는 일부 청춘 남녀들은 결혼 전에 2세의 머리 IQ를 생각해 성적 증명서 제출을 결혼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듯이... (하기야 요사이 청춘 남녀 사랑(?)은 성적표로 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아~싸 호랑나비아 날아봐...)

나의 농장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이 필요하다.

돈콜레라, 돈단독 같은 갑작스런 변화 등은 기록이 없어도 알 수 있지만, 사료요구율의 변화, 산자수의 감소 등은 정확한 기록없이 감각적 통찰(?)으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요사이 일부 앞서가는 사료회사에서는 기록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사양가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기록이 여의치 못한 사양가가 있다면 이러한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나는 도저히 정말로 바빠서 기록을 할 시간이 없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구멍가게 할머니가 외상값을 하나하나 기억하듯이 농장의 모든 상황을 다 머리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지, 또 다른 하나는 돼지 그만 키우고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된다.

4. 똥개는(멍멍)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의도에서 코피 흘리며 싸워도 아-하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이와같이 주변의 멍청한 바위덩어리 하나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이제 우리의 양돈산업도 풍량이 휘몰아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한바탕 대전을 치루어야 한다.

이제 출정식에 앞서 우리의 배를 최신키 무기(중돈개량, 돈사시설 개선)와 군기 확립(사양관리 강화, 업계의 단합된 의지)을 통하여 적군의 배를 무차별 박살시킬 수 있는 안전태세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배만 보면 전세계인이 인사하게(기가 죽어서)끔 하고, 또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만든 영양 덩어리를 먹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이 모든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